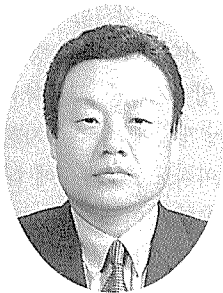


# 세계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



어 윤 대  
〈 국제금융센터 소장 〉

## 1. 세계경제의 최근 동향

최근 세계경제의 움직임을 정리해 보면 몇 가지 특성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것이 소위 패러다임의 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의 현실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함에 있어 충분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우선, 지난 8년 가까이 계속돼 온 미국 경제가 서서히 내리막길로 돌아섬에 따라 세계경제를 주도하던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가 다극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연방준비이사회(FRB)가 지난 6월과 8월에 연이어 두 차례의 금리인상을 단행함으로써 '강한 달러'가 이끌어 온 미국경제의 전성기가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무성하다. 금리인상은 무역적자와 더불어 자금이탈을 부추기고 달러약세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일본과 유로권이 새로운 세계경제의 역할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일본경제는 지난 80년대의 거품 붕괴이후 장기간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기지개를 펴고 있다. 또한 영국을 비롯한 유로권 국가들의 경제도 회복세로 돌아선 것으로 각종 통계 자료들이 발표되고 있다. 환율 자체가 국가경제를 나타내는 유일한 지표가 될 리는 없지만 최근의 엔고나 유로화 동향을 보면 이들 지역이 회복세로 빠르게 돌아서고 있음을 알 수 있어 환율동향이 국가경제의 체력을 반영한다는 생각도 든다.

둘째로, 세계경제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경제권으로 묶여짐으로써 각국 경제의 상호의존도가 그만큼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0년대 들어 중남미, 동구권 그리고 아시아에서의 외환위기를 통해 나타났듯이 어느 한 곳의 위기상황이 곧바로 인근의 경제

위기로 전염돼 전세계가 동시에 경제불안에 빠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때문에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를 통해 세계경제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 한다든지 하는 상호 협조의 노력이 가일층 중시되기 시작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세계경제의 참여 주체인 기업부문이나 정부부문이 결제망 등 전산시스템에의 의존도가 점차 증대하여 단순한 시스템 장애조차 전세계로 파급될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Y2K 문제와 관련한 불안감은 연말이 다가올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단기조달금리가 치솟는 소위 '밀레니엄 프리미엄' 현상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셋째로 세계경제는 극심한 무한경쟁 체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자국이익의 보호를 우선하여 세계무역기구(WTO)의 '뉴 라운드'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의 수용을 강제함으로써 경제·사회적 펀더멘탈이 약한 후발경제권 국가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오로지 강자만이 살아 남아 시장을 독식하는 약육강식의 정글 법칙이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운영원칙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최근 산문지상을 오르내리는 국경을 초월한 기업간 인수합병(M&A)의 물결과 거대기업화의 추세가 이와 같은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 2. 한국경제를 둘러싼 환경변화의 영향

이와 같은 환경변화가 한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미 금리인상의 영향** : 현재 미국경제는 그 펀더멘탈이 건실하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적자 폭이 사상최대 규모인 3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과 경기과열 조짐에 대한 예방책으로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각각 25bp(0.25p)씩 인상하였다. 미 금리인상은 지금 당장보다는 내년부터 미국경제의 성장을 둔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8년째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경기 호황은 개인소득 증대와 소비 증가에 힘입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이후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는 곧 미국을 주요 수출시장으로 하는 한국 등의 수출을 위축시켜 세계경제의 회복에 타격을 어느 정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동안 미국의 주식시장에 투자되었던 자본들이 일본과 유럽 등지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선진 투자은행들의 자산운용 전략은 달러표시 자산의 비중을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신 일본과 유럽의 증시로 대거 유입되는 통계치들이 발표되고 있다. 특히 달러표시 대외부채 비중이 큰 중남미 국가들은 국내 정치경제적 혼란과 더불어 미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부담 증대로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돼 또 다른 경제위기의 진원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미 금리인상으로 인한 국제금리의 상승은 경기부양을 위한 중국정부의 저금리정책에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런민폐(인민폐)의 평가절하 압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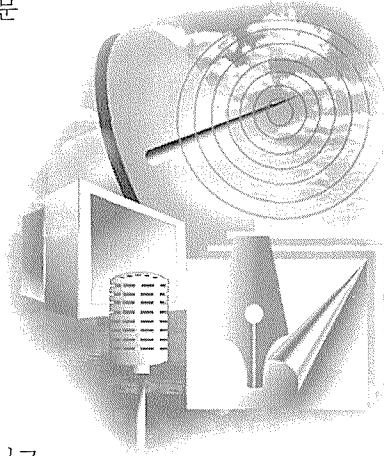
**일본 엔화·유로화의 동향** : 미국경제에 대한 불안감과 달리 일본경제는 모처럼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지난 6월초부터 엔화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때이른 엔고로 유럽사리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경기위축에의 우려로

일본정부의 시장개입에 의한 환율방어 노력도 있었지만 당분간 엔화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엔화강세는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수출증대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경제가 안고 있는 3가지 과잉현상 -설비과잉, 인력과잉, 부실자산과잉- 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에 의한 경기부양효과는 그리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일본경제의 불안 요소이며, 우리 경제로서도 유의해야 할 점이다.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일본의 실업률은 사상 최악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민간소비 역시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향후의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유로권 11개국의 경기전망도 울들어 계속된 유로화 약세에 힘입은 수출회복으로 서서히 경기침체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로권의 경제회복은 세계경제의 미국의존도를 낮추는 계기가 돼 미 경제의 둔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세계경제의 안정화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회복으로 유로화의 강세가 계속된다면 달러화를 대체할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이 다시 조명을 받을 것이다. 더욱이 재정흑자로 인해 미정부채 시장이 축소될 전망이다이므로 외환보유액 구성통화로서 유로화의 비중은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

**유가·원자재 가격의 동향** : 또 하나 세계경제의

어두운 그림자는 국제유가의 움직임인데, 지난 3월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생산량을 하루 5.3백만 배럴씩 감축하기로 합의한 후, 유가의 국제거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또한 주요 원자재인 알루미늄, 납 등의 비철금속 가격 역시 지난 6월 이후 유가상승과 맞물려 급속한 상승세로 돌아섬에 따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 경제는 이들 원자재 소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국제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입부담의 증가는 고스란히 무역수지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소맥,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의 국제가격 동향 역시 심상치 않다. 1997년 이래 아시아 지역의 수요 감소로 하락추세에 있던 주요 곡물 가격이 지난 7월 이래 주생산지인 미국 중서부 지방의 흑서로 인해 수확량 감소가 예상돼 가격상승 추세에 있다. 한국은 곡물수요의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가격변동에 따라 무역수지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3.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

주변의 환경변화가 빠르게 진전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가 지난 2년간의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회복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선진경제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기업과 금융권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다. 부실기관 몇 곳의 퇴출이 구조조정의 전부일 수 없는 것이다. 대한생명, 서울은행 등의 부실기관 처리 문제가 아직 매듭을 풀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대우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추이 역시 대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부실기관은 시장에서 자연히 퇴출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 구축돼야지 부실이 발생할 때마다 공적자금 투입 등 정부의 인위적인 조정 노력이 계속되는 한 진정한 구조조정의 완성은 어려울 것이다.

둘째, 1990년대 들어서 아시아, 중남미 및 동구권 국가의 외환위기 원인은 근본적으로는 국제금융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총체적 역량의 부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과 같은 선발개도국이나 대부분의 후발국들은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미국 등 선진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시장경제원리가 지배하는 무한경쟁 체제에 돌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비록 한국경제가 지난 2년간의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21세기 재도약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세계가 이미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여 있는 요즘 미국의 금리인상, 국제유가 상승, 중남미권의 불안 등 한국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들이 향후에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각각의 사안들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도 일견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의 기본 틀을 장기적인 시각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재정립하여 능동적으로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과거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개발연대(開發年代)의 패러다임을 소위 '인터넷시대'에 적용하기엔 그 실효성이 낮고 이미 그 자체 안고 있는 구조

적인 문제점도 충분히 노정된 바 있는 것이다. 급속하게 변하는 불안정한 경제환경에 총체적으로 분석·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은 더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세째, 최근의 엔화강세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 기업이 설비증설에 나서고 가계부문의 씹씹이가 해피진다면 그리 머지 않아 엔고로 인한 효과가 줄어들 때 우린 또다시 과잉설비와 수익성악화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다.

수출은 줄어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이고 부풀려진 소비습관에 의한 고물가에 덩미를 잡힐 것이다. 일본경제는 아직 펀더멘털 측면에서의 회복기미가 약하기 때문에 엔화강세는 장기간 지속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재정자금 투입의 효과보다도 회복기미를 보인 것일 뿐 저조한 민간소비와 투자, 높은 실업률과 고령인구 증대로 인한 노동인구의 감소 등 일본경기 회복세는 단명에 그치고 말 가능성이 높다. 미국경제의 둔화조짐도 아예 불황의 늪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너무 빠르게 진행될 경우에 대비한 속도조절의 의미라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달러강세가 국익과 직결되느니 만큼 미국정부가 달러약세를 방치해 둘 리 없는 것이다. 이렇듯 세계경제의 환경 변화가 언제까지 우리 경제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움직여주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는 지금처럼 다소 여건이 개선되고 있을 때 부지런히 구조조정을 하여 경쟁력을 축적할 시간을 벌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원화절상 방어 등 단기적인 미봉책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전략수립과 경제체질의 질적 전환에 박차를 가할 시기를 놓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본다. ☺